

계면활성제 원료 구조조정 활발

Petresa, LAB 플랜트 최적화 추구 ... 인수·매각으로 적자 타개

계면활성제 생산기업들이 가격인상 및 신제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인수, 매각 및 내부 구조조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범용 계면활성제 공급기업인 Petresa는 1999년 브라질 LAB 생산기업 Deten 인수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슬로바키아 Petrochema와 제휴를 결성해 중앙유럽 지역에 LAB 유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Petresa의 경쟁기업인 Sasol은 2003회계연도(2003년 6월 마감)에 LAB 사업에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태리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하고 메릴랜드주 Baltimore 인력을 30% 감축했다. 대신 UOP의 Pasol LAB 생산기술을 이용한 다른 LAB 플랜트를 최적화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특수 계면활성제 생산설비를 처분할 계획이나 특수 계면활성제 사업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Alcohol 신규 생산능력은 Sasol이 2002년 중반 남아프리카 Secunda에서 12만톤 플랜트의 가동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Shell은 2002년 루이지애나주 Geismar 소재 Alcohol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15만톤 증설했으나 같은 해 10만톤을 감축했다. BP도 2002년 미국에 있는 소규모 플랜트를 폐쇄했으며 Huntsman은 2003년 영국 생산라인을 폐쇄했다.

Shell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세계 세계 Alcohol 생산능력이 약 6만톤 감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Sasol은 자사 및 Shell이 각각 신설 플랜트의 가동에 들어가면서 세계 Alcohol 사업이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했다. Sasol은 비록 수익성은 여전히 낮지만 Secunda 소재 새로운 석탄계 플랜트의 코스트 경쟁력에 만족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2개 생산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특수분야에서는 BASF가 2003년 7월 일리노이주 Gurnee 소재 계면활성제 플랜트를 Petroferm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ASF는 Petroferm과 외주가공(Toll Manufacturing)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Ester, Alkoxylate 및 Silicone 계면활성제를 계속 공급받게 된다. 동시에 루이지애나주 Geismar 소재 계면활성제 생산설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대량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Akzo Nobel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2년 Crompton의 공업용 계면활성제 사업을 9200만달러에 인수한 이후 2003년 본격적인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인력을 약 250명 감축했다. 반면, 플랜트 폐쇄는 없었는데 Akzo는 전략적 수요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Akzo는 2003년 10월 싱가포르 소재 2300만달러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플랜트의 가동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소재 Oleochemical 합작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5/12>